부산상공회의 Show

Story for 부산CEO

12월호

2023. 12 Vol. 621

부산상공회의소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21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BCCI SPECIAL

04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가

06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개최

08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핸드폰을 통해
부산상공회의Show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10 국내 여행지 추천
겨울을 찾아 떠나는 제주도 감성여행

14 메시지 인 시네마
테러에 대처하는 두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영화

18 CEO를 위한 와인추천
연말을 함께 보내기 좋은 와인 추천

20 가객의 인문학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받는 일종의 위로

ZOOM in BCCI

22 STORY OF 캡틴장

24 사진으로 보는 2023년 부산상공회의소

26 기업포커스
제일전기공업㈜

30 Look at Me
스타트업 주식회사 센디

트렌드 TALK

34 트렌드 TALK
– 중국 최남단 푸른 낙원 하이난 골프여행
– 한·일 골프 교류를 통한 대중 골프 문화의 발전
– 겨울철 뇌동맥류 시한폭탄으로 둘 것인가?

경제 트렌드

40 경제키워드
– 파괴적 인구위기? 혁신적 성장기회!
–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 개선

44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6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8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YouTube Instagram facebook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가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최삼섭 부회장, 김운석 상임의원 등 부산상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단은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에 참석하여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다.

모니터링 룸에서 총회를 지켜보고있는 부산 관계자들

5차 PT 핵심은 인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파트너

최종 투표 직전 실시된 5차 PT에서 부산은 오프닝으로 지난 10년간 정부, 기업, 국회, 시민이 함께한 유치활동 및 여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진솔하고 열정적인 부산의 의지를 알리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첫번째 연사로 박형준 시장이 사람, 자연, 문화,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글로벌 축제의 도시 부산을 소개하고, 나승연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대사가 2030 부산의 비전과 약속을 제시하였다.

많은 인파가 몰려든 BIE총회장 입구 앞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사로 등장해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공약인 인류 최대의 글로벌 협업과 비즈니스의 장, 인류의 대전환을 위한 연대의 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다. 다음 연사로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 UN사무총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UN의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월드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나승연 홍보대사가 대한민국 부산의 진심과 약속을 강조하면서 BIE 회원국들과 함께하고자하는 대한민국의 진심이 담긴 의지를 전하며 5차 PT를 마무리 하였다.

파리 현지에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응원전에 참여한 장인화 회장

최종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30월드엑스포 유치 확정

이후 로마와 사우디가 차례로 PT를 하고 BIE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실시하였다. 165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부산은 29표로, 119표를 얻은 리야드에 90표 차로 2위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3분의 2(110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장인화 회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과 기업인들

장인화 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이 하나되어 최선을 다했지만 유치실패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물류 인프라의 확대는 향후 부산경제의 발전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다음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난 2년간 물심양면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부산상의 의원부와 지역 상공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개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하라!", "한국산업은행 이전으로 지방시대 앞당기자!",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 같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부산시민 100여명의 함성이 국회 본관에 울려 펴졌다.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

부산시민,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부산상공회의소가 산업은행법 조속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출범시킨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는 11월 3일(금) 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시민,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추진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첫 출발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표출하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 날 행사는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마무리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 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산은법 개정을 요청하신 만큼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부산지역 시민대표들은 21대 정기국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시하고 한국산업은행 이전 방안 용역 역시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계획을 채택하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양당에 전달되었다.

인사말을 하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부산시민대표들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지역 상공업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인 선정 및 시상

부산상공회의소는 11월 23일(목) 11시 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부산산업대상은 1983년 제정된 이후 지역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부산상의는 매년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기업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부산상의는 부산산업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영·기술·사회공헌 등 3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경영부문 삼원액트㈜ 배광호 대표이사 ▲기술부문 ㈜화신볼트산업 정순원 대표이사 ▲사회공헌부문 스타자동차㈜ 유재진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영부문의 배광호 대표이사는 1999년 삼원액트㈜ 설립 이후 수입에 의존해오던 배선 절감 제품들을 국산화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 산업현장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영부문 수상자 삼원액트㈜ 배광호 대표이사

기술부문의 정순원 대표이사는 초고압·초고온 등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품질의 특수볼트를 개발하여 GE, CAMERON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항공·우주 부품 개발로 영역을 넓혀가는 등 기술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술부문 수상자 ㈜화신볼트산업 정순원 대표이사

사회공헌부문의 유재진 대표이사는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인재양성, 지역 문화 활동 등에 대한 후원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적극 환원하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 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사회공헌부문 스타자동차㈜ 유재진 대표이사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올 한해 경기침체 심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신 수상자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부산상의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지역 주요 기업인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축사를 하는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안성민 시의회의장

제41회 부산산업대상 기념촬영

겨울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제주도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분다. 겨울이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아니지만 겨울이라서 더 좋은 여행지도 있다. 제주도가 그렇다. 제주도를 에메랄드빛 바다와 키 큰 야자수가 있는 여름의 섬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겨울에는 눈이 잦은데다 한라산은 겨우내 눈으로 뒤덮여 겨울왕국이 따로 없다. 눈이 귀한 부산사람이라면 제주도만큼 쉽고 빠르게 겨울감성을 즐길 여행지도 드물다. 한겨울에도 싱그러움이 가득한 감귤밭. 끝없이 펼쳐지는 동백꽃 물결.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방어 등등 겨울 제주여행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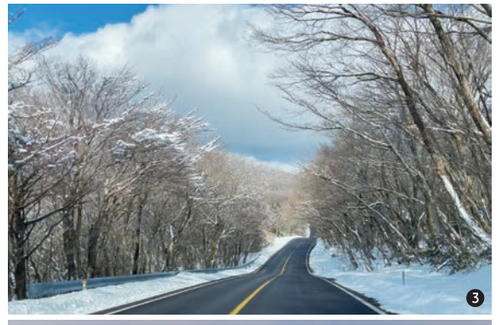
❶ 한라산 영실탐방로
❷ 한라산 선작지왓평원

한라산 영실탐방로

겨울에 제주도를 여행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한라산으로 달려가자. 가장 단시간에 드라마틱한 겨울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영실~윗세오름 코스가 쉽다. 영실탐방로를 따라서 1시간 30분 정도만 부지런히 오르면 해발 1,600m 윗세오름에 닿는다. 나무 데크로 계단이 잘 조성돼 있으니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한라산의 다양한 설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이동하면 힘든 줄 모르고 오를 수 있다. 1시간 남짓 계단길을 오르면 갑자기 평원이 나타난다. 선작지왓평원이다. 고산지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넓은 평원에 새하얀 눈이 뒤덮인 풍경은 흡사 시베리아의 들판을 보는 듯하다. 발아래 걸린 구름을 보고난 후에야 여기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겨우 실감하게 된다. 한라산 백록담을 바라보며 눈 덮인 벌판을 걷는 맛이 황홀하다. 때때로 불어오는 거센 눈보라와 눈꽃이 핀 겨울나무들도 잊지 못할 절경이다.

한라산 1100고지

눈 덮인 겨울산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한라산의 설경을 즐겨봐도 좋다. 창밖으로 스쳐지나가는 새하얀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주의 겨울을 듬뿍 느낄 있으니 말이다. 한라산을 관통하는 도로인 1100도로(지방도 1139호선)은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라산



❸ ❹ 한라산 1100도로

❶ 한라산 고산습지

중턱 해발 1,100m 고지를 지나는 도로인 만큼 한국에서 보기 힘든 고산설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온통 흰색뿐인 세상 속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이 쉼 없이 이어지며 시시각각 다른 풍경을 내보인다. 카메라를 든 손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느라 정신이 없다. 이 멋진 설경은 차 안에서만 보기는 아쉽다. 1100고지 휴게소에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열리면 1100고지 일대의 눈 덮인 한라산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휴게소 건너편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고산습지다.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색다른 설경을 맛볼 수 있다.

아부오름

오름도 제주의 설경을 만끽하기에 좋은 장소다. 제주에만 300개가 넘게 있는 오름은 높이도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어지간하면 30분 이내에 다 오를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 하다. 그 중에서도 아부오름은 가장 제주다운 설경을 만날 수 있는 오름이다. 원래 이름은 '앞오름'인데 이름처럼 앞동산 정도의 야트막한 언덕이라 아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다. 호흡이 살짝 가빠질 무렵 도착한 정상은 생각보다 크고 넓다. 분화구 가운데에는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 때 심었다는 삼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어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발 아래로 송당마을을 비롯한 한라산 중산간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밭 뒤로 작은 오름이 봉긋 솟았다. 높고 각진 선은 없고 낮고 둥근 선들만 가득하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풍경이다. 분화구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길 추천한다. 왜 제주여행에서 오름을 빼놓을 수 없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테니까.

❷ ❸ 아부오름

위미 동백군락지

11월부터 2월까지, 제주의 겨울은 동백의 계절이다. 제주 곳곳에 동백군락지들이 있는데 위미리도 그 중 하나다. 제주의 거센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것이 시초가 돼 지금과 같은 동백군락지가 탄생했다. 위미 동백군락지도 그렇다. 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선 위미 동백군락지보다 인공적으로 심어 관리하는 제주동백수목원이 더 인기다. 원래는 개인 농장이지만 얼마 전부터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면서 줄을 서야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잘 자란 동백나무들이 오와 열을 맞춰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그에 비하면 위미 동백군락지는 투박하고 거칠다. 아이들이 삐뚤삐뚤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갑고 정겹다. 위리리 주변으로 동백꽃을 테마로한 카페들도 많다. 이렇게 즐기든 저렇게 즐기든, 제주의 겨울은 동백의 계절이다.

❹ 제주동백수목원
❺ 카페 '동박낭'

서귀포 감귤박물관

겨울 제주도여행에서 절대 빠트릴 수 없는 것이 귤이다.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귤이지만 산지에서 먹는 귤은 확실히 다르다.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싱싱하다. 귤을 테마로 한 카페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귤밭이나 귤 보관 창고를 카페로 만든 곳들도 많다. 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다면 감귤박물관으로 가보자.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온실에는 생전 처음보는 신기한 감귤나무들이 가득하다. 흔하게 먹던 감귤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박물관에선 감귤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신선한 감귤로 쥬스를 만들어 먹거나 밭에서 감귤을 직접 따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❻ ❼ 감귤박물관

영화로 본 현대사

테러에 대처하는 두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영화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 슨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진다.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 등이 발생하며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소개한다.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이 두 작품은 정치와 국가를 떠나 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뮌헨_Munich(2006)

아르고_Argo(2012)

<뮌헨>(2006) : 복수가 거듭될수록 피폐해지는 인간

Movie Info

개봉 2005. 12. 23.(미국) 2006. 2. 10.(대한민국)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첩보, 드라마, 액션, 스릴러, 실화
국가 미국
러닝타임 163분

사진출처: CJ 엔터테인먼트

올림픽에서 인질 납치 테러가 발생했다. 이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벌어진 실화다. 팔레스타인의 극좌파 테러단체 '검은 9월단'은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해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인질로 잡고 아랍 정치범의 석방을 조건에 건 테러를 벌인다. 결국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단이 그들의 총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그러자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보복을 위해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뮌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팔레스타인인 11명을 쫓는다. 영화 <뮌헨>은 '신의 분노' 작전이라 불린, 이스라엘의 검은 9월단 보복 암살 작전을 다룬다. 주인공 아브너는 유럽에 뿔뿔이 흩어진 적을 찾아내 복수하는 비밀 조직의 리더다. 그는 폭탄 제조, 문서 위조, 도주와 사건 뒤처리에 능한 전문가 팀원들과 적을 한 명씩 제거한다.

유대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선택

<뮌헨>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계 미국인이다. 유대인 가정 출신, 미국의 자본, 그리고 멋지게 임무를 수행하는 영웅의 모습과 세계 정의 구현을 좋아하는 할리우드 영화를 떠올릴 때, 이 영화는 테러 주동자를 제거하는 비밀 조직의 활약상이 박진감 있게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스필버그다. 감독은 <뮌헨>에서 테러, 복수, 민족과 국가가 강요하는 신념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행하는 인간에 집중한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

복수의 비밀 임무와 무관하게, 주인공 아브너는 종종 번화가의 주방용품점 앞에 서 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진열장 너머를 바라보기만 한다. 복수의 암살 임무를 실행하는 요원이지만 한편으론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그리워하는 가장의 모습이다. 또 아브너는 적을 살해할 때도 민간인이 다치는 것을 경계한다. 테러단체 수장의 집에 설치한 사제폭탄을 터트리려던 순간, 적의 어린 딸이 등장하자 작전을 중지한다. <뮌헨>에서 강조된 가족의 모습은 주인공만의 것이 아니다. 아브너에게 적들의 개인 정보를 파는 정체불명의 정보원 '루이'도 대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족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테러와 복수의 암살 작전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끝나지 않는 피의 응징

뮌헨 사건의 복수를 위해 테러단체의 수장들을 암살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일까. 영화에는 복수 작전이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테러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주인공들이 적을 살해할수록 여객기 납치, 대사관의 폭발물 설치 협박 등 끝없이 또 다른 복수가 벌어진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폭력의 역사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며 아브너는 피폐해진다. 그는 자신도 암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신경쇠약에 빠진다. 스필버그 감독은 아브너가 바라보는 세상이 점차 회색빛으로 변하도록 연출했다. 그가 바라보는 하늘도, 그가 서 있는 시가지 건물들도 회색빛이다. 끝없는 피의 복수 속에서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간다. 지금 중동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감독의 세계 인식이다.

<아르고>(2012) : 영화 같은 영화 작전의 이면

Movie Info

개봉 2012.10.31.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스릴러
국가 미국
러닝타임 163분

사진출처: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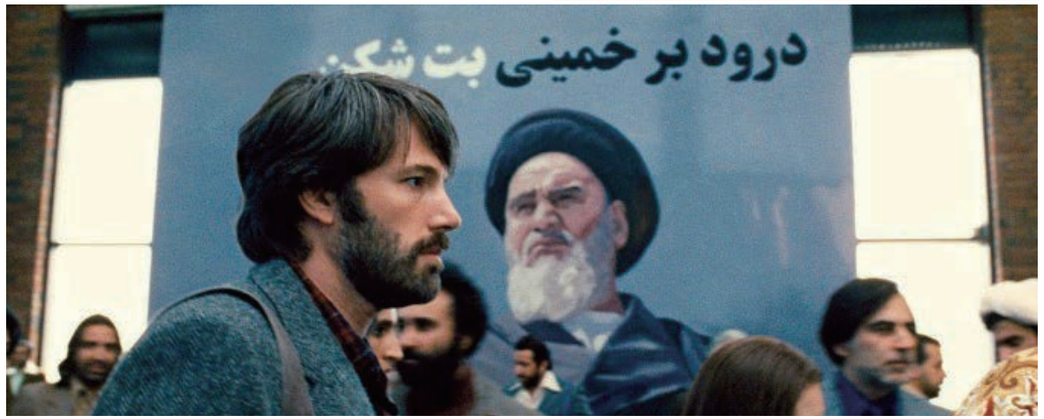
테러와 스파이, 비밀 작전은 영화의 단골 소재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결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여러 영화에서 펼쳐진다. 관객은 그런 장르영화를 재미있게 보면서도 그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판타지라고 여긴다. 그런데 영화를 사용한, 정말 영화 같은 실제 첩보 작전이 있었다. 1980년, 영화 촬영으로 위장해 이란에 억류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한 작전이다. 79혁명 직후, 축출된 팔레비 왕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란인들은 온당한 처벌을 위해 그를 내놓으라고 미국에 요구한다. 1979년 11월, 성난 시민들은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다 대사관을 점거하기에 이르고, 대사관의 미국인 직원들은 모두 억류된다. 그 와중에 피신한 6명이 캐나다 대사관에 80여 일간 은신하게 되었는데, 미국인을 색출하려는 이란 혁명군의 눈을 피해 그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이 전개된다. 영화 <아르고>는 '캐나디안 케이퍼 작전'이라고 불린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다.

모두를 속여야 가능한 미션

캐나다대사관에 은신한 미국인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모색하라는 임무를 받은 CIA 요원 '토니 맨데스'는 아들이 시청하는 영화 <혹성탈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들을 SF영화의 해외 촬영차 이란을 방문한 할리우드 영화제작팀으로 위장시킨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 멘데스는 세계 모두를 속이는 작전을 짠다. 거물 분장사와 감독을 섭외하고, 사무실을 얻어 가짜 영화제작사를 설립하고, 진짜 SF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구매해 소문을 내고, 제작발표회를 열어 기사화되도록 한다. 이란의 혁명군뿐 아니라 할리우드까지 속이는 작전이다. 허구와 판타지를 구축하는데 능수능란한 할리우드에서 베테랑 산업 관계자들마저 속인다. 그런데 허구가 진정으로 숨긴 것은 무엇인가.

성공한 작전 너머

성공한 실제 작전이기에 관객은 <아르고>의 결말이 성공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재미는 결말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특이 <아르고>는 이란 혁명군을 악당으로 묘사하거나 이란 대 미국이라는 뻔한 대립 관계에 치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영화의 긴장감은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는 순간까지 계속된 CIA와 백악관의 줄다리기, 캐나다 대사관과의 협조 등에서 형성된다. 미국 등 서방이 각자 입장에 따라 중동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SF 영화에는 지구를 침공한 악당 외계인과 지구를 지키는 선한 영웅이 대립한다. 그런데 현실은 누가 악당이고 영웅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스릴있는 첩보물 이면에 물음표가 하나 남는다.



2023 December Vol. 621

연말을 함께 보내기 좋은

와인 추천

글·사진_ 고창범 와인비버 대표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도 인류의 행복에 한층 더 공헌한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식문화의 권위자인 브리야 사바랭이 남긴 말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과거의 별빛보다는 접시 위에 따끈한 음식이 더 현실감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조금 있으면 연말과 크리스마스다. 이런 특별한 날에 특정한 와인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맛있는 와인과 음식을 빼놓고 즐거움과 흥을 논하면 좀 서운한 느낌이다. 그래서 연말에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과 그에 걸맞은 음식들을 추천해 본다.

고급 샴페인을 대신 할 만한 이탈리아, 미국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급 스파클링 와인이라면 모스까또 다스티(Moscato d'Asti)는 2~3만원 대의 가성비 좋은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이다.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 화이트 와인으로 청포도 맛과 달콤한 향미에 청량감이 좋아 인기가 높다. 파티나 모임용 으로 제격이며 샌드위치와도 조합이 좋고 매콤한 아귀찜, 낙지 또는 주꾸미 볶음과 함께 하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난다. 그런 맛을 즐기려면 반드시 5~7℃로 차게 해서 마셔야 청량감과 달콤함, 그리고 신선한 과일 맛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탈리아산 간치아와 비에티 와인을 추천한다. 미국 스파클링 와인도 품질이 좋다. 그 중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슈렘스버그 스파클링 와인은 웬만한 프랑스 샴페인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솟구치는 버블의 파워가 대단하며 살짝 감도는 당미는 애교스럽다. 과일 풍미와 효모의 구수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맛난 와인이다.

간치아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

비에티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

배비치 소비뇽 블랑

새콤한 맛과 고수, 피망, 그리고 열대 과일의 향연, 소비뇽 블랑 와인

청포도인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은 '천연 산미'속에 오싹한 신맛과 초록색 야채나 향신료 향들이 열대 과실 풍미와 공존한다. 그래서 어떤이는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소비뇽 블랑 와인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로 묘사한다. 그로테스크한 모습에 초록빛 피부와 검정 드레스를 입은 기이한 모습은 마치 와인에서 나는 피망과 같은 푸른색 야채 풍미와 고수처럼 강한 향기에 비유되곤 한다. 음식과도 조합이 좋아 해물 떡볶이, 베이컨 말이 아스파라거스, 전, 그리고 샐러드와도 친화적인 술이다. 음용 온도는 8~10℃에서 마셔야 제 맛을 낸다. 도그 포인트, 클라우디 베이, 그리고 배비치 생산자를 추천한다.

역대 프랑스 국왕들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샴페인들

샴페인은 와인의 꽃이라 할 만큼 화사하고 매력적이다. 샴페인(불어식 발음은 상파뉴)은 프랑스 파리 동쪽에 위치한 지역 이름으로 예로부터 스파클링 와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역대 프랑스 국왕들이 대관식 때 사용했던 와인이며 마릴린 먼로, 마돈나, 오프라 윈프리, 윈스턴 처칠 등 수많은 스타와 셀럽들이 사랑했던 와인이기도 하다. 농어, 광어 스테이크, 조개관자, 스시, 해산물 파스타, 심지어 '회'랑 천생연분이다. 짜릿한 맛과 기분 좋은 느낌을 풍성하게 전해주어 결혼식이나 피로연 등 행복한 순간에 빠질 수 없는 세계적인 와인이다. 마를린 먼로가 생전에 즐겨 마셨던 파이퍼 하이직, 처칠이 사랑한 폴 로저, 그리고 에밀 갈래가 디자인한 아네모네 꽃문양이 아름다운 페리에 주에 벨 에포크 샴페인을 추천한다. 음용 온도는 7~8℃이며 꼭 지켜야 한다.

파이퍼 하이직

페리에 주에 벨 에포크 로제

연말에 꼭 마셔 볼만 한 레드 와인, 말레스꼬 생텍쥐페리

따스함과 잔잔한 감동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관련 있는 멋진 레드 와인 한 병을 소개한다. 왠지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와인인데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있는 샤또 말레스꼬 생텍쥐베리 포도원에서 생산된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의 할아버지(장 밥티스트 생텍쥐베리 Jean Baptiste St. Exupery)가 1827년에 샤또 말레스꼬 Chateau Malescot 포도원을 매입하여 전 주인의 성(Malescot 말레스꼬)에 자신의 성을 더하여 오늘날 포도원 이름이 말레스꼬 생텍쥐페리 Malescot St. Exupery가 된 것이다. 매끈한 질감에 풍부한 맛이 매력적이며 바닐라 크림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기품 있는 술이다. 앙증맞을 정도의 산미와 다채로운 향기에 취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와인이다. 질 좋은 등심, 안심 스테이크와 함께 하면 더할 나위 없다. 마실 때 음용 온도는 15~18℃가 가장 맛있다.

말레스꼬 생텍쥐페리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받는

일종의 위로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위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위로'라는 단어는 일종의 가리개처럼 느껴진다. 상처와 진실을 덮고, 좋은 게 좋다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어쩌면 이건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방어기제인지도 모른다. 위로 받지 못했으니, '위로'를 폄하함으로써 이차 외상을 막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온 인간들의 특성이다. 위로가 필요 없다고 여김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위로'라는 말을 무시하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꽤 잘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위로를 무시하고, 착시를 얻는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은 '위로'가 넘쳐나서 오히려 '위로'를 가장 꺼리게 되는 달이다. 스스로에게 한 해의 노고를 보상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나, 1년 동안 잘 살았어, 수고했어'라고 상투적인 자위도 거부한다.

아무려면, 위로가 필요 없었겠는가. 산다는 건 다치고 깨지는 일이다. 위로가 필요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 부지불식간 위로를 받은 후다. 가령, 위로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게 마음을 움직였을 때. 위로를 그토록 경계하고선 정작 아주 작은 위로의 자극에도 위로를 받아버린다. 무방비로 무너진다.

이영훈의 노래 <일종의 고백>은 그런 노래다. 2015년에 발표됐다(2022년, 곽진언도 불렀다). 이영훈은 1983년생이다. 유명하지 않은 가수다. 노래도 자신 없는 듯 읊조린다. 머뭇거리면서 힘겹게 부른다. 그래서 더 위로가 돼 버린다. 그의 어눌함에 과잉 위로를 받아 버린다.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나는 가끔씩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 줬으면
다 사라져 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사랑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겠는가.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모든 것들이 마음의 역방향으로 흘렀다. 그런데도 세상만사가 다 그렇다고, 나만 그런게 아니라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순간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했었다. 인내할 힘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땐 누군가 '나를 좀 안아 줬으면' 싶을 때도 있었다. '미쳤구나' 자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일종의 고백>에 위로를 받아 버렸다면 당신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다. 이 노래는 당신의 '그림자(shadow)'를 만나게 해 줬을 것이다. 너무 열심히 산 사람은 '페르소나(persona)'가 강하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자아'다. 건강하고 성실하고 원만한 페르소나로 무장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자를 여전히 무시하고 페르소나를 더 굳건히 해야 할까. 심리학자 '칼 융'은 그 그림자를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겐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자를 수용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는 것, 어차피 흘러갈 마음일 테니 살면서 그 말 한 번쯤은 '흘리고 싶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 또한 부정하지 않게 된다. 이 초라한 진실은 '그림자'를 대면할 때만 알 수 있게 된다.

때로는 격려가 더 힘들다. "잘 할 거야"라는 말은 "잘 해야 돼"라는 말보다 더 무겁다. 응원도 받고 싶지 않다. 이미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채찍질당하는 것 같다.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필요했던 건 '위로'였다.

이영훈의 노래는 '일종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글은 '일종의 위로'다. '위로'라는 말이 여전히 꺼려지는 가난한 영혼에게 보내는.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2023. 11. 6.)

부산이 나아가야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모노세키 상의 사절단 접견 (2023. 10. 26.)

양 지역 경제계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갑시다~^^

Invest Korea Summit 2023 (2023. 11. 7.)

글로벌 도시 부산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도시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121 34

주한 콜롬비아 신임대사 접견 (2023. 11. 10.)

대사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과 콜롬비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합니다.

박희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 접견 (2023. 11. 15.)

지역사회 발전에 민주평통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339회 상임의원회 (2023. 11. 23.)

내년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 친선경기 및 송년회 (2023. 11. 20.)

의원님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2023. 11. 23.)

이번 산업대상 수상자 분들 훌륭하시지요^^?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진으로 보는 2023년 부산상공회의소

2030세계박람회유치

#신년인사회

Jan.

1. 2. 부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 16. 부산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

1. 2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업 기부금 전달식

Feb.

2. 16. 2030부산세계박람회 에디션
퍼스트 테이스팅

2. 22.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Mar.

3. 7.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3. 17.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3. 21.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

Apr.

4. 28.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

4. 12.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초청
제251차 부산경제포럼

#기업 원스톱 지원

May.

5. 23.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 센터 개소식

Jun.

6. 9.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6. 20. 제172차 BIE 총회 참석 및
르노그룹 귀도 학 부회장 접견

6. 29. 2023 SLUSH'D×99°C

#세계 최대
스타트업 행사

Jul.

7. 19.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제134주년 기념식

7. 3.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

Sep.

9. 26.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

#산업은행 부산 이전

Nov.

11. 23. 제41회 산업대상 시상식

11. 3.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스마트 배선기구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일전기공업㈜

CHEIL ELECTRIC

2023년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주거공간에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전자기기들이 주거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주거공간과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집안에 각종 전자 기기 및 생활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주거의 질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제일전기공업은 이러한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해 필요한 배선기구 및 차단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기업이다.

제일전기공업 강동욱 대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마트 배선기구 분야 대표기업

제일전기공업은 1955년 창립한 이래로 올해 68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와 제2공장을 비롯하여 서울 사무소, 대구, 광주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부품인 배선기구, 스마트 배선기구, 차단기, 마그네트, 분전반, 스마트 분전반 제조이며, IoT배선기구, 음성인식 스마트배선기구, 풀터치 스위치 관련 신규 제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한 제일전기공업의 기술력

제일전기공업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분임조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는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일전기공업은 별도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약 200여종의 KS마크, 70여종의 UL 및 CSA(캐나다표준규격) 인증, ISO 9001, 9002, 14001, 22301, TUV(독일 기술관리협회) 등 다양한

ISO14001

ISO22301

ISO45001

ISO9001

❶

❷

❶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제일전기공업
❷ 산업부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꽂음 접속식 누전 차단 콘센트

노출형 분전반

전자 개폐기

주택용 분전반

산업용 배선차단기

대기전력 자동차단 스위치

해외인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보험협회가 인증하는 UL마크는 해외 인증 규격의 대표격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분야 공업규격으로 이 인증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일전기공업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수많은 제품의 UL규격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지난 2012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제일전기공업은 이 시기 동안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체질 전환을 시도하며 스마트 배선 기구,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등 IT스마트 기능을 갖춘 신제품들을 개발·출시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

제일전기공업은 사업 초기인 1972년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기 시작해, 1980년대 초반부터 수출을 본격화하고 북미, 동남아로 수출 무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2012년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 2015년 3,000만불 수출의 탑, 2017년에는 5,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제일전기공업의 꾸준한 성장은 매출액의

2022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2022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2022년 고용·노사문화 우수상

2022년 부산고용대상 특별상

2022년 품질경영혁신 대통령 표창

신소재 에너지 절약 전력분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3)

제49회 무역의 날 이천만불 수출의탑(2012)

제52회 무역의 날 삼천만불 수출의탑(2015)

제54회 무역의 날 오천만불 수출의탑(2017)

EATON 2015 Supplier Excellence

사하구 이웃돕기 성품 전달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전달

5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으라면 단연 세계 굴지의 전기장체 제조기업인 미국 이튼(EATON)사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미국 이튼(EATON)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에너지솔루션, 전력 품질, 유압기기, 항공, 자동차 부품 등 분야기업으로 세계 175개국 이상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제일전기공업은 이튼 그룹에 전기화재를 방지하는 장비인 아크 차단기의 핵심부품인 PCBA 등을 오랜기간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1988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초기에는 50만 달러 수준이었던 이튼 그룹과의 거래 규모는 약 35년간 관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이튼사의 전세계 25,000여개의 협력업체들 중 매년 6개 업체에만 시상하는 서플라이어 엑셀런스 어워드(Supplier Excellence Award)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에는 이튼사가 추진하는 'SMART BREAKER 2.0'프로젝트에 참여해 핵심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A)을 2026년부터 연간 2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직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제일전기공업은 고객들의 만족을 위한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을 꾸준히 이뤄내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며,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개인별, 부서별 원가절감 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어린이 재단 후원, 장애인 복지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오랜기간 꾸준히 실천해오며 지역사회와 소통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미래 도약을 향해

전기 배선기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제일전기공업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이다. 제일전기공업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올해 3월 스타코프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개발부터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생산, 영업, 유통 등에 대한 공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와 전국 도소매 영업망을 활용해 아파트 및 빌라에 제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전기공업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짐을 쉽고 싸게” 운송 시장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센디

센디는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화물운송 매칭 플랫폼 ‘센디’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운송 일감과 동선을 매칭하고, 물류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화물운송을 필요로 할 때 센디의 앱이나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1만여명의 차주를 확보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센디의 시작

센디는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두 곳의 스타트업이 힘을 합쳐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출발하였다. 웨딩 어플리케이션(앱) 1위 “웨딩바이미”를 서비스하는 어뮤즈파크의 선현국 대표와 이사 앱 1위 “이사모아”를 운영하고 있는 JYC컴퍼니의 염상준 대표가 의기투합해 “벤디츠” 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부산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염상준 대표는 1978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JYC컴퍼니를 창업해 운영해왔으며, 이사모아는 출시한 지 반년 만에 5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관련 앱 1위를 달성하였다. 염상준 대표는 이사모아를 운영을 통해 방문 견적을 반드시 해야하는 점과 이사 시 동네 위치에 따라 차량진입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염 대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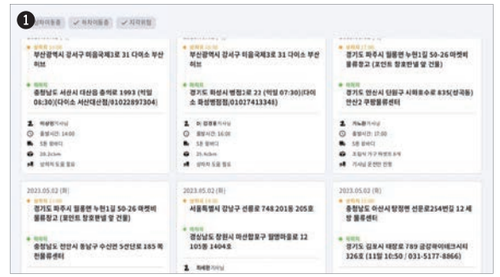
센디_앱 서비스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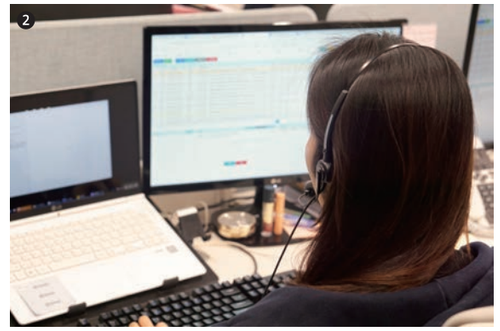
센디 염상준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

과정에서 1톤 용달차 증가 수가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달은 3시간 전에 일감을 제공해도 운송이 가능하며, 이사와 달리 용달은 합짐 등을 통해 화주는 운송 비용 절감, 차주는 운송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금의 화물용달플랫폼 “센디”가 탄생하였다.

화주와 차주를 직접 매칭하는 플랫폼 ‘센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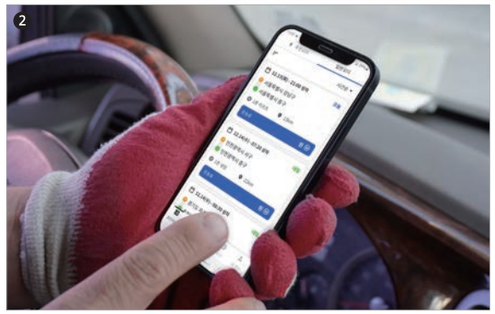
2021년 기준 개별 화물차주의 월 평균 운행 일수는 22.5일, 근로 시간은 하루 평균 10.5시간으로 순수입은 평균 242만원이다. 1톤 ~ 3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주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172만원이라고 한다. 화물 운송 시장에서 다단계 주선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3건 중 1건 꼴로 3단계 이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 복잡 다단한 거래 구조로 인해 화주는 높은 운임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주의 수입이 더 악화되는일이 비일비재하다.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 관점에서는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유류비, 통행료 다음으로 주선료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개별 화물차주는 하루 평균 278.98km 중장거리 위주의 운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특히 화물 없이 차를 운행하는 공차운행 거리 비율이 26.9%에 달하며, 적절한 일감이 매칭되지 않아, 운행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되는 공차운행은 도로 내 혼잡도와 탄소배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주의 니즈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감 제공으로 인해,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차주는 무리한 운송 일정을 소화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센디는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화물운송 매칭 플랫폼으로, 기존 다단계 운송 거래 과정을 1단계로 줄이면서 화물 차주는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화주도 주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일감과 동선을 매칭하고, 물류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❶ 센디 운송관리 화면
❷ 센디 초기 CS 팀

❶ 실제 운송기사와 연계하여 오더를 관리하는 화면
❷ 화물 기사가 어플을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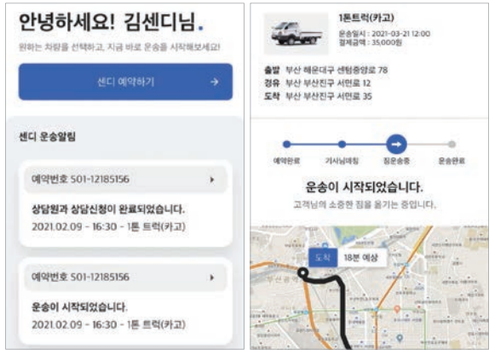
최적화된 매칭 기술로 운송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다

센디 플랫폼은 AI기술을 활용해 실제 운송 데이터를 분석, 날씨, 운송 시간대, 작업 소요 시간, 운송 난이도 등에 따라 최적의 운송 요금을 계산한다. 공차 시간을 줄이고, 화물 합승 시스템을 도입해 차주의 운송 수입을 높이고, 14일 정산 서비스, 운송 스케줄 관리 등을 통해 화물 차주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센디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1만 여명, 2023년 1분기 기준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98.37점이다. 주요 화주 고객사는 아성다이소,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남거창농협 등으로 특히 미들마일 물류시장을 겨냥해,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있다. 예를 들어, 간편식 전문 플랫폼 기업의 제조창고에서 유통센터까지의 콜드체인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화주는 센디 플랫폼에서 화물의 동선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이용고객들의 생생한 후기

1톤 용달 개인 고객은 “오늘 급하게 당근마켓을 이용하게 됐는데, 용달차 예약부터 결제, 기사님 매칭까지 30분이 안 걸렸어요. 덕분에 당근으로 물건도 잘 받고, 전화 없이 앱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응답했으며, 2.5톤 카고 이용자 농산물 운송 고객은 “논산에서 서울 하나로 마트로 물건 보낼 때 원래 운송해주시던 기사님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센디를 이용했어요. 중요한 거래처라 납품이 차질 생기면 안되는 거였는데 무사히 딸기 납품했습니다. 신세계네요”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앱에서 화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



차주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 생태계

센디는 운송 차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차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디를 이용한지 10개월 된 차주 정OO씨는 “센디 이용 전에는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는데, 센디 이용 후에는 매월 50~100만원 가량 수입을 더 올리고 있다”며 “빠른 정산, 예약 운송 등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대한 운전자의 편의를 살피고 개선하는 모습에 신뢰감이 간다”고 전했다. 실제 센디 드라이버 대상 데이터 분석 결과 93%가 “센디 서비스 이용 후, 월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27%는 “이전보다 50% 이상 월 수입이 증가했다”고 답하였다. 80% 차주가 ‘운송 스케줄 관리가 더 편해졌다’고 응답했다.

부산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

센디는 최종 70억원 규모로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 하였다고 한다. 이번 시리즈B 투자 라운드에는 센디가 운송 시장에서 증명한 물류 혁신성과 AI기반의 자체 개발 배차 시스템 등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 설립 이후 배차 및 운송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 업무환경의 개선을

❸ 센디 시리즈B 투자 유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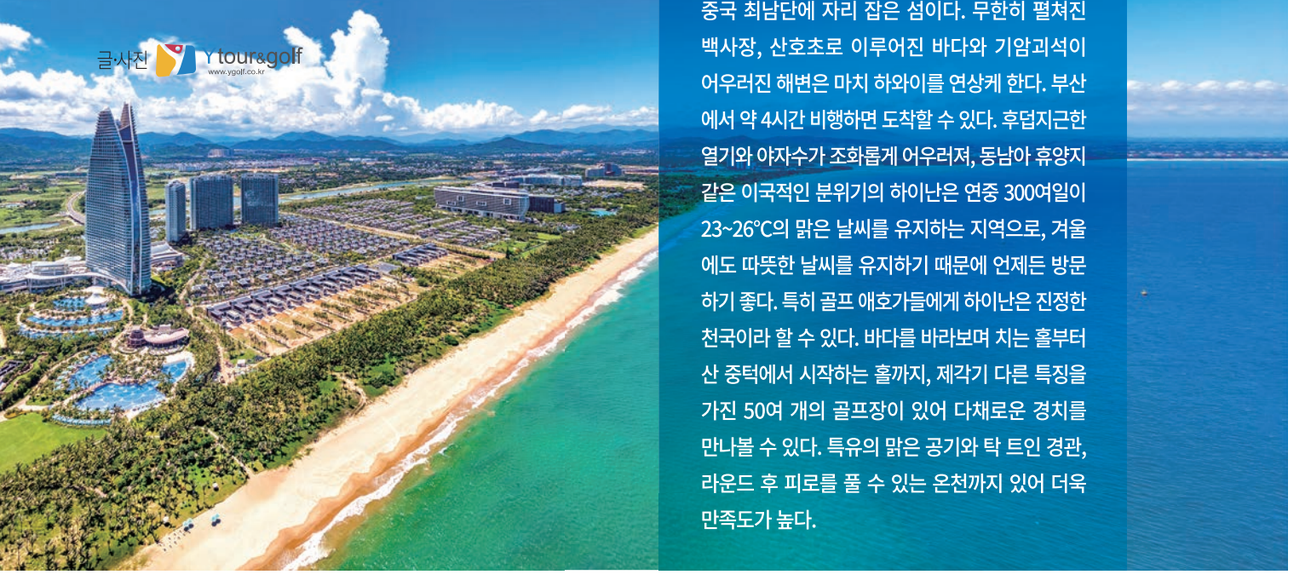
주도하였고, 시장 혁신성 및 향후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전략적 협업을 통한 농산물 운송 시장 진출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투자 유치에 주요하게 작용 한 것이다. 센디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연구개발(R&D) 관련 인력 채용과 투자를 통해 운송 수요와 공급 데이터 라벨링 및 분석을 고도화하고, 농산물 운송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운송 디지털화가 필요한 산업이나 신규 시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물운송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가 부족하고 디지털화가 느려, 37조원의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센디는 운송 시장의 디지털화를 업계의 해결 과제로 생각하며 시장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화주와 차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센디의 성장 과정과 도전이 기대된다.

❹ 센디와 농협의 업무협약체결
❺ 센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중국 최남단 푸른 낙원

하이난 골프여행

글·사진 Y tour&golf www.ygolf.co.kr



열대 해양 기후의 따스함과 코발트빛 바다에 둘러싸인 하이난은 제주도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 최남단에 자리 잡은 섬이다. 무한히 펼쳐진 백사장, 산호초로 이루어진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변은 마치 하와이를 연상케 한다. 부산에서 약 4시간 비행하면 도착할 수 있다. 후덥지근한 열기와 야자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동남아 휴양지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의 하이난은 연중 300여일이 23~26℃의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기 좋다. 특히 골프 애호가들에게 하이난은 진정한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치는 홀부터 산 중턱에서 시작하는 홀까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50여 개의 골프장이 있어 다채로운 경치를 만나볼 수 있다. 특유의 맑은 공기와 탁 트인 경관, 라운드 후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까지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다.

아룡만CC

18H | Par 72 | 7,189 Yard

완만한 지형과 수백 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룡만 해안의 모래, 해양 식물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해안가 리조트 형태의 골프장이다. 하이난에서 무난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평지 코스의 18홀 골프장으로, 산과 바다, 초록의 야자수가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다. 우선 시야에 들어오는 페어웨이의 탁 트인 경관이 감탄사를 자아내며, 코스 곳곳에 아기자기한 냇물이 굽이굽이 흘러 라운드를 한 결 시원스럽게 한다.

아룡만CC

썬밸리CC

썬밸리CC

27H | Par 109 | 11,306 Yard

한 골프장에서 산, 바다, 호수는 물론 사막까지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썬밸리CC의 각 코스는 매 홀마다 특별한 경관을 자랑한다. 4~6홀은 아룡만 호수를 둘러싸고 있고, 7개 홀에선 아룡만 뷰를 볼 수 있다. 5개 홀에서는 커다란 사막풍경이 펼쳐진다. 골프장 내 식물들도 대부분 희귀한 열대식물이라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PAR 3·4·5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타자들이 좋아할만한 878야드의 PAR 6 홀이 있다는 점이다. 열대 나무와 꽃 등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골프장이다.

페닌슐라CC

페닌슐라CC

36H | Par 72 | 7,484 Yard

페닌슐라CC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환경의 링크스풍 씨사이드 코스 골프장이다. 하이난 섬의 신주 반도에 위치해있으며, 기복이 심한 해안 사구에서 삐죽삐죽한 산간 거암까지 독특한 지리와 매혹적인 경치를 코스에 녹여냈다. 해안 모래언덕과 우뚝 솟은 바위들이 독특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대부분의 티박스 옆과 앞에는 잔디가 아닌 벙커와 모래땅이 함께하는 매우 독특한 모래언덕 듄스로 되어있다.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풀만 오션뷰 산야 베이 리조트

아틀란티스 산야 리조트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70만평의 부지와 1만평의 워터파크, 880평의 키즈클럽, 3,800여개 객실을 갖춘 하이난 최대 복합 리조트로 각기 다른 컨셉의 7개 타워가 있다. 키즈클럽, 무비스튜디오, 쇼핑, 영화관, 아트갤러리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랑하며, 70여개의 다양한 레스토랑으로 리조트 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이다.

풀만 오션뷰 산야 베이 리조트

400여개 전 객실 모두 오션뷰로, 5년 넘게 가꾼 아름다운 정원 너머 해변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모든 객실은 개별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전망과 도시가 조화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다. 워터파크에는 4개의 야외 수영장과 슬라이드 풀이 있으며, 전용 수영장을 갖춘 동남아시아풍의 고급 풀빌라도 이용할 수 있다.

아틀란티스 산야 리조트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처럼 신비로운 해저에 있는 듯한 분위기의 초특급 리조트이다.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 아쿠아리움에서는 벨루가를 만날 수 있으며, 두바이를 그대로 재현한 워터파크에는 8개의 슬라이드와 유수풀, 파도풀, 키즈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이 리조트의 하이라이트인 '넵튠 언더워터 룸'에서는 객실 내 유리 벽 너머로 물고기들이 있어, 바닷 속에서 잠드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추천 관광지

대소동천 중국의 '5A급 관광지'인 대소동천은 빼어난 경관과 함께 도교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의 조화로, 중국 정부에서 가장 높은 관광지 등급을 부여한 곳이다.

송성가무 쇼 미국 라스베이거스 쇼, 프랑스 물랑루즈 쇼와 더불어 '세계 3대 쇼'로 꼽히는 송성가무쇼는 중국 항저우를 시작으로 하이난 등 6개 도시에서 선보이는 세계적인 공연이다.

한·일 골프 교류를 통한 대중 골프 문화의 발전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필자는 ㈜와이투어앤골프 대표라는 본업 이외 대한골프협회 산하 부산골프협회 이사로 사회에 봉사 중이다. 올해 여름 본업을 통해 일본의 마츠야마라는 곳에 전세기를 띄우고 해당 노선이 정기편으로 취항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전세기가 정기편이 되었으니 개인적으로는 경력에 좋은 커리어 하나를 추가했다. 며칠전 이곳 마츠야마가 속한 에이미현 골프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노선이 개설되면서 부산지역 골프협회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곳 에이미현에는 총 19개 골프장이 있고 골프에 진심인 25명의 임원이 있는데 한일교류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것이 골자였다. 반가운 제안이다. 사실 지금은 한국의 남, 여골프가 세계적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한국골프의 시작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왔다. 일본골프로부터 차용된 한국골프의 청출어람같은 우수성이야 널리 알려져있으니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필자가 일본을 방문하며 수십번의 라운드를 통해 느낀 우리 골프도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일본 골프문화에 대해 몇가지 적어본다.

골프장에서의 예의 바른 태도

일본골프는 예의 그 자체이다. 버블이 꺼지면서 노캐디 일본골프는 예의 그 자체이다. 버블이 꺼지면서 노캐디 문화가 일찌감치 정착된 탓인지도 있겠으나 경기전, 그리고 경기중에 경쟁자 및 동료골퍼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경기 후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 단적인 예가 골프장 티업에 임박해서 헐레벌떡 카트에 오는 골퍼를 본 적이 없다. 항상 티업시간 이전에 카트에 채가 실려있고 티업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일본에서 일상이었다. 그들은 티업 타임을 정말 철저히 지킨다. 경기팀에 양해를 구해고 소위 끼워들어가는 것은 언강생심이다. 앞조가 늦다고 드라이버를 서둘러 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샷에 방해될까 앞팀 티박스에서 멀찌기 세워두는건 기본이다. 대신 티샷이 마음에 안든다고 멀리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유로 티샷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 꼭 양해를 구하고 간다. 적어도 내가 경험한 일본골퍼들의 태도는 그랬다. 한국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한 문화와 태도이다.

다양한 플레이와 퍼팅을 중시하는 일본골프 문화

일본골퍼들은 스스로 스코어를 적고 라운드 이후 본인의 스코어를 교환하며 확인하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있다. 골프에 진지하고 스포츠로서의 기본을 확실히 지키는 느낌이다. 일본골프에서 사뭇 놀라는 건 퍼팅에 오케이가 없다는 것이다. 끝까지 홀안에 공을 넣어야 홀플레이가 마무리된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에서도 그린 관리를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는 말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골프장들 대부분이 그린 스피드나 관리에 있어서는 골프장의 좋고 아쉬운걸 따지지 않고 상당히 만족스럽다.

철저한 클럽 중심의 골프장 운영시스템

일본골프는 상당히 엄격한 멤버십 시스템과 높은 입회비가 있는 스포츠이다.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골프 또한 많은 부침은 겪고 있으나 여전히 회원가입 회원예약 등에 대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골프장에서의 애로는 회원의 권리나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단부제 운영, 노캐디 운영, 관리 외주 등으로 골프클럽 차원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비회원 부킹을 다발적으로 받고 양도권한을 축소하고 반강제적으로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올리고 클럽 식사도 터무니없이 올리며 장사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과는 많은 대비가 된다.

지역 간 교류가 골프문화 발전에 초석이되길 바라며

한국의 골프는 박세리 이후 세리 키즈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고 스크린 골프를 통해 폭발적인 대중화를 이루었다. 최근 KPGA도 많이 활성화되어 미디어를 통해 대회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KLPGA만큼 재미나고 박진감 넘친다. 한국 아마추어 골프가 한국 프로골프만큼 세계 골프의 수준으로 그 위상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골프와의 첫 교류가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필자가 꿈꾸던 본격적인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골프 교류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양국간의 골프경험, 규칙 예절 등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포츠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자리인만큼 양 지역의 골프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겨울철 뇌동맥류 시한폭탄으로 둘 것인가?

글_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 환절기 추위에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뇌동맥류의 경우 뇌 혈관이 외부 기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일교차가 큰 11월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뇌동맥류가 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뇌동맥류란?

뇌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혈관 일부가 꽈리처럼 불룩해지는 질환이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 얇은 부위가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이 파열이 되어 생기는 지주막하출혈은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환이다.

뇌동맥류는 파열 여부에 따라 비파열성, 파열성으로 구분

먼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검사를 통해 파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일상에서 운동,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며 주기적 검진으로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피가 흘러나오면 사망 위험과 합병증 발생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10명 중 1~2명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며, 2~3명 정도는 수술 중 사망하고, 수술을 진행한 환자 중에도 20% 정도만 추후 장애 없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뇌동맥류는 초응급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뇌동맥류 증상

뇌동맥류는 증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비파열의 경우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두통, 시력저하, 감각 이상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파열 시에는 극심한 두통, 구토, 경부 강직 등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질환과 크게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뇌동맥류 진단과 치료

뇌동맥류의 진단은 주로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 영상),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표적 치료 방법으로는 개두술 및 결찰술, 코일 색전술이 있다. 개두술 및 결찰술은 헤어라인 부분의 일부를 절개 후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조여 혈액이 흐르는 것을 막는 치료법이다. 그리고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대퇴동맥에 작은 관(카테터)를 삽입하여 카테터를 통해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채워 넣으며 필요한 경우 스텐트를 삽입한다. 동맥류의 모양, 크기, 위치 등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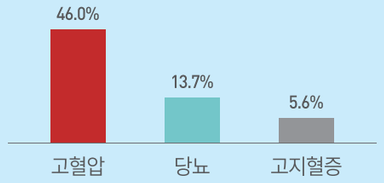
뇌동맥류의 심각성

뇌동맥류	1년 내 뇌출혈	급사
전체 인구 중 3~5%	뇌동맥류 중 0.5~1%	뇌출혈 중 50%

뇌동맥류 파열 위험이 큰 그룹

- 가족 내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 환자가 있는 경우
- 여성이 남성보다 흔함
- 고령자
- 흡연자
- 유전성 다낭성 신장 질환 환자

뇌동맥류 기저질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험요인 및 예방법

뇌동맥류는 큰 전조 증상이 없는 질병이므로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의 뇌동맥류 환자가 있다면 유전을 의심, 주기적인 검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후천적으로는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가장 주요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금연과 절주는 필수이며 생활 속에서 고혈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운 겨울의 일교차로 인해 큰 편차를 보이는 혈압의 변동이 뇌동맥류 발생이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의 출혈을 일으키는 75%의 원인이 고혈압

발견이 어려운 뇌동맥류를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시 된다. 그렇기에 고혈압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아래에 나와있는 겨울철 고혈압 관리법을 잘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속 습관

① 적정 체온 유지
②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며 샤워하기
③ 하체 운동 하기(단,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기)
④ 음주 자제(겨울철 뜨거운 국물 요리, 매운 안주류 피하기)

파괴적 인구위기? 혁신적 성장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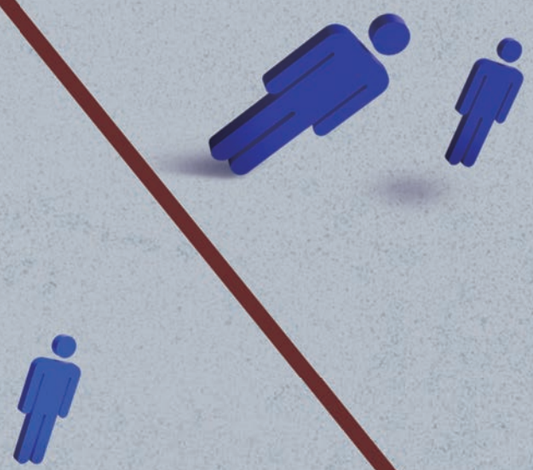
글_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 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Ph.D. 경제학)
- 현)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
- 현)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 심의위원
- 현) 감사원 인구정책 자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저서

-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2022-2027
- 각자도생 사회



"한국, 완전히 망했군요" 0.70명(2023년 2분기)의 출산율을 본 해외석학의 평가다. 놀랍지는 않다. 일찌감치 경고된 예정경로다. 속도가 빨라졌을 뿐 상식이슈다. 더 놀라운 건 짧은 관심 속 무반응·무대책의 멈춰선 개혁과제다. '인구=경제'조차 외면·무시하며 상수를 변수로 취급하는 집단탐욕이 놀라울 따름이다. 개전의 정조차 없는 위쪽공기를 읽은 후속세대가 결혼·출산의 가족분화를 포기한 배경이다. 세계꼴찌답게 예측범위를 계속해 벗어나면 20년 후 출산은 제로에 닿는다. 위기 후의 소멸이다. 그렇다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 현실은 몰라도 지향은 아니다. 무너져서도, 무너질 수도 없다. 뒤집어보면 위기는 기회다. 기회를 뜻하는 경험과 자산도 많다.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지속가능의 신자본주의를 새로 써낼 대형 점프도 기대된다. 전제조건은 정확한 원인과 확실한 대응부터다.

먹이 찾아 서울 와도 둥지 없이 알 못 낳아

원인은 뭘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확실하듯 인구변화의 전후방 인과·상관변수를 분해하는 게 먼저다. 크게 2가지다. 일반론과 특수론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만의 특이현상은 아니다. 고성장이 끝나고 풍요사회가 되면 출산은 줄고 수명은 늘어난다. 선진국 중 인구유지선(2.1명)을 웃도는 출산율이 없는 이유다. 노동·보험기능 등 출산편익이 낮아진 반면 소수자녀의 집중투자가 선호된 결과다. 저성장으로 한정자원까지 축소된다. 가족결성·자녀출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특수론도 있다. 자연감소(출생-사망)를 부추기는 한국형 사회이동(전입-전출)이 그렇다. 사농공상의 고학력·대기업 인생모델이 오랜 중앙집권 속에 '사람은 한양으로'란 주술을 만들었다. 이로써 '서울권=고밀도=저출산'은 완성된다. 좋은 대학·회사가 일극집중으로 몰리니 12%의 수도권에 51%의 과밀이 빚어진다. 반면 수도권은 가족분화를 방해한다. 소득·물가의 엇박자(스태그플레이션)는 직주분리를 키우며 결혼·출산을 억누른다. '학력주의 → 서울전입 → 맞벌이 → 독박육아 → 출산포기'의 악순환이다. 먹이가 없어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 배경이다.

또 반복될 듯한 기시감의 인구대응 실패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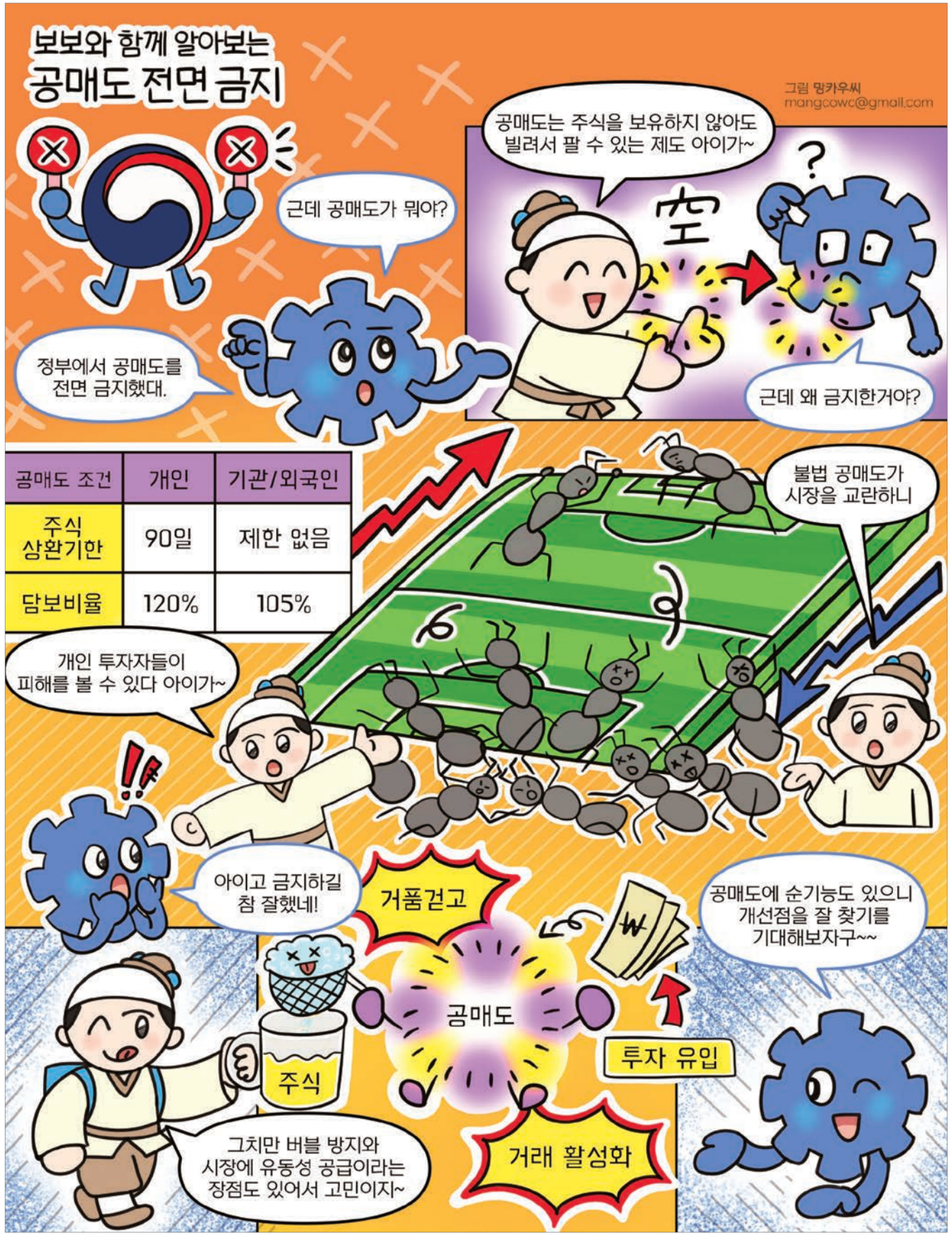
물론 숱하게 노력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20년·380조원을 출산정책에 썼다는 말도 빈말은 아니다. 다만 총평은 아쉽고 박하다. 늘 한 박자 이상 늦어버린 전철을 밟았다. 그만큼 인구정책은 어렵다. 세대효과란 말처럼 한두 세대 후에 정책성과가 확인돼 긴 호흡과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해서 성과지체의 인구관성은 선진국도 겪었다. 그래도 선진국은 ±1.6명까지 출산율을 묶어냈다. 한국보다 빨랐지만, '완화→적응'의 전략성과가 확인됐다. 배움직한 교훈이다. 이제 절실한 건 실효·총체적인 대응해법이다. 더는 실패하지 않고 공멸에서 벗어날 대책마련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상황은 무르익었다. 누구든 인구변화의 축적된 충격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상생활의 체감압박도 거세졌다. 대학의 정원미달과 군대의 징집부족은 시작됐다. 더 내고(증세) 덜 받는(복지) 시대변화의 본격화다. 신정부가 내놓은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이 중점의제로 부각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초반의 호기가 중반의 포기로 연결될까 우려된다. 기시감이 구체적이다. 요컨대 마지막 타이밍이다. 소중한 접근과 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방치하면 희망은 없다.

정권 바뀌어도 휘둘림 없는 실천전략 절실

방향성은 나왔고 방법론이 남는다. '인구절벽'을 '인구혁명'으로 삼자면 혁신적 접근방식은 상식에 가깝다. 지금처럼 철지난 과거방식만 고집하면 상황은 더 꼬인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법이 옳다. 단기·주변부의 일시·표피적인 보여주기는 곤란하다. 인구문제는 진영논리에 따른 취사선택형 쟁점이슈의 범주도 넘어섰다. 절멸사태를 막자면 대폭적인 인식전환과 총체적인 정책세트가 장기적인 성과축적을 위해 제도화되는 수뿐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당연지사다. 인구대응은 부처차원을 초월한 시대변화의 원인·결과답게 완벽히 재구성된 신질서를 뜻한다. 부처상단의 컨트롤타워가 실효적으로 통제해 개별정책의 누수·중복을 막자는 얘기다. 주체부터 제도(법률·예산)는 물론 인식·관행까지 재구성하는 게 좋다. 뼈를 깎는 발본(拔本)적 구조개혁만이 가족분화·출산카드의 달라진 신질서와 직결된다. '장기비전→핵심의제 → 세부전략 → 실행체계 → 성과평가'의 밸류체인(KPI)을 지속하는 차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휘둘림 없는 신호가 중요하다.

혁신기회의 출발 '인구보너스는 인재 보너스로'

우선의제는 '인재혁명'이다. 인구위기를 인재혁명으로 뒤집을 생산성·부가가치 증대전략의 마련이다. 고도성장 때의 연공서열·종신고용을 대체할 '채용 → 임금 → 승진 → 퇴직'의 고용시스템부터 뜯어고치자는 의미다. 후속세대의 희생이 전제된 과거방식에서 중립·중도적인 근로형태로의 전환을 뜻한다. 반면 정년제는 개혁과제다. 특정연령 후 강제은퇴는 인구보너스일 때 정합적이다. 지금은 이민증가조차 역부족일 정도로 노동하락이 위협적이다. 경력단절여성처럼 출산·육아로 묻혀버린 인재활용도 새롭게 담아내는 게 필수다. '인구보너스 → 인재보너스'를 위한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의 전원활약이 전제된다. 인구대응은 넘어야 할 산이자 피하기 힘든 숙명이다. 저성장·재정난에 인구병까지 겹친 트릴레마의 한국상황을 보건대 대응여하에 따라 신자본주의를 엮어낼 유일무이의 샘플사례로 제격이다. 선진국조차 인구병은 아직이라 한국상황을 추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속성장의 신자본주의 혁신실험이 한국에서 펼쳐질 수 있다. 투입요소의 감소와 부가가치의 증가가 실현되면 아담스미스조차 울고 갈 대목이다. 총성은 울렸다. 남은 건 행동뿐이다.



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 개선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였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그동안 대형 금융위기 발생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경제 트렌드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배경과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의 배경

공매도 한자를 보면 빌'공'(空)자를 쓰는데, 이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에 되사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무차입 공매도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거래로 시세차익만 챙기는 '유령 거래' 와 같은 것으로, 애초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으니, 행여 싼값에라도 주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교란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인데, 최근 정부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이유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특성상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이라는 점에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보력·자본력에서 기관과 외인에 비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우리 공매도 제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을 차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식 상환 기한이 90일로 설정되어 있지만, 기관·외국인에겐 제한이 없으며, 담보 비율에서도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 105%로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공매도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수행하는 기능들

공매도 금지가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여 매수·매도 가격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이야기해온 만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와 함께 하락장에서 이익을 보는 만큼 이들 세력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이나 평가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기대

정부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받던 개인과 기관 간 차별적인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향후 정부의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BOOK

평범한 사람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비밀 8가지

돈의 태도

조너선 클레멘츠 | 동양북스 | 18,000원

이 책은 평범한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비밀을 다룬 책이다. 책의 저자 조너선 클레먼츠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30년 동안 돈의 본질을 탐구했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를 만들었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이 부를 이룬 방법은 다양했지만, 그들에게는 돈의 태도와 부를 이룬 공통된 8가지 비밀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아는 것이다. 돈의 태도를 모른다면 애써 쌓은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읽고 돈의 태도를 깨달으면, 돈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 두려움, 패배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서 돈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이다.

진짜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부자처럼 보이기는 쉽다!

라이프 트렌드 2024

김용섭 | 부키 | 19,800원

2013년 첫선을 보인 《라이프 트렌드》는 국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전문 시리즈로 매해 핵심 트렌드를 날카롭고 흥미진진하게 전망, 분석하면서 11년 연속 베스트셀러다. 이번 《라이프 트렌드 2024: OLD MONEY》에서는 '올드 머니(Old Money)'를 가장 주목한다. '올드 머니'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부, 혹은 그런 부를 소유한 부자를 일컫는다. 신흥 부자(벼락부자, 졸부)인 '뉴 머니(New Money)'와 달리 겉으로 돈 많음을 자랑하는 대신 '조용한 럭셔리'와 '스텔스 웰스'를 추구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토대로 예술에 투자하고, 문화 자산을 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부와 자선에 적극 나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전통과 헤리티지(유산)를 지녔다. 올드 머니의 소비와 패션, 라이프스타일과 감성, 취향과 문화 따라 하기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올드 머니' 트렌드는 2024년, 패션과 취향에서 그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과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방위에서 변화와 파급 효과를 이끌 것이다.

경제전문가 34인이 진단한 2024 한국경제의 전망!

2024 한국경제 대전망

류덕현, 이근, 박태영, 오철, 정무섭, 정문영, 지만수, 경제추격연구소 | 21세기북스 | 22,000원

《2024 한국경제 대전망》은 2024년 한국경제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로 금리와 물가, 미중 갈등과 중국의 회복, 반도체를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는 한국의 물가를 통화정책 목표인 2%대로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고, 해소될 길이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경제가 얼마나 회복할 것인가도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이다. 더불어 올해 한국 반도체산업이 왜 계속 하락해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반도체의 회복이 왜 한국경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인가 등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 국내 최고 경제 전문가 34인의 날카로운 통찰과 혜안을 담은 이 책은 독자들에게 2024년 한 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정책당국자나 CEO들이 초불확실성 하에서 겪게 되는 의사결정 부담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이다.

경제위기에 살아남는 확실한 실전 투자법!

경제위기 투자 바이블

곽상빈, 김피비 | 평단 | 18,800원

우리는 세계 대공황부터 IMF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큰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위기,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에 이 책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잡아 성공투자로 가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회계사, 감정평가사로 주식투자 분야 스테디셀러 작가인 곽상빈과 경제 예측 적중률 100%로 '한국의 마이클 버리'라 불리는 천만 경제 유튜버 빅쇼트 김피비가 경제위기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경제위기의 역사와 원인, 경제위기에 특별히 통하는 투자나 경제위기 전과 후에 투자자로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 재산을 불리는 투자원리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32인의 고찰과 예측

2024 대한민국 대전망

이영한 외 31인 | 지식의 날개 | 19,800원

과학,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지식인 32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중위기의 시대'였던 2023년에 이어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을 전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각 분야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은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고찰을 통해서만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 생각이다. 2024년 대한민국이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5개의 지지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과학 혁신력', '경제 활력', '사회 균형력', '환경 회복력', '문화 포용력'으로 구성된 5개의 지지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AI, 경제안보, 반도체, 주택문제, 기후변화, 총선, 탈가족화 등 시대적 이슈의 양상과 전망이 5개의 지지대 위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펼쳐진다.

Busan Economic News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수상

동아플레이팅은 10월 31일 이오선 대표가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인 부문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생산성대회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ESG경영 활동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오선 대표는 2015년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꾸준히 제조 현장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생산성 37% 향상, 불량률 77% 감소, 제조 리드타임 25% 단축 등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는 "스마트공장 기반 공정 혁신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제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개최

대한제강은 11월 8일 부산 녹산 공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및 준법 경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매년 11월 8일을 대한제강 전 임직원이 준법의식을 다짐하는 '자율준수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선서'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규정을 적극 준수하고, 대한제강의 행동강령 정신을 구현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한제강은 공정거래 법규의 자율준수가 사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원을 위한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세정그룹은 박순호 회장이 11월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인물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 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박순호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세정그룹을 이끌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개인 기부와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기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은산해운항공㈜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은산해운항공은 11월 11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은산해운항공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중국, 베트남 등 국내외에서 근무하는 은산해운항공 임직원 및 가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은 "창립 이래 LCL 화물 물류를 선도해 온 은산해운항공그룹이 해외 수출입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토탈 원스톱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강소기업 성장에 이바지 해왔다"며, "앞으로도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 부산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3호 회원가입

한일냉장은 11월 6일 오종수 회장이 부산 3호 초고액 아너소사이어티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기부금 1억원을 약정해 부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후 1억원을 완납했고, 2019년 12월에는 기부금 2억원을 추가 약정해 부산 초고액 아너소사이어티 세번째 회원이 됐다. 이날 오종수 회장은 초고액 아너에 이름을 올리며 약정금액 2억원 중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은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밝고 평화로운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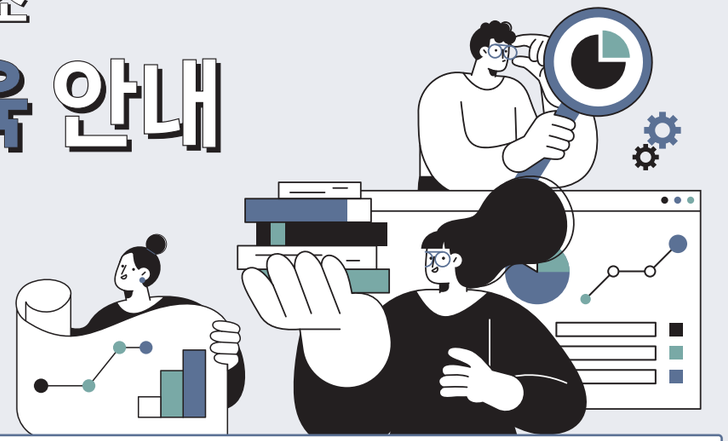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이사 2023 서점의 날 '올해의 서점인상' 수상

영광도서는 서점의 날을 맞아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11월 10일 개최한 '2023 제7회 서점의 날 기념식'에서 김윤환 대표이사가 '올해의 서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윤환 대표는 서점관련 정책 및 독서문화 전반에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11월 11일 서점의 날은 서가에 꽂혀 있는 冊(책)과 이를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날짜로 전국 서점과 서점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되었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12월)



1 (제1차)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2.11.(월) 09:30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손창용 세무사/세무학 박사(세무법인 지율)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2023년 귀속과 달라진 주요개정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 대상 연령조정 및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신설 • 대학입학전형료 등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신설 •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및 중소기업취업자 감면한도 확대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개념 / 연말정산 의무자 / 연말정산 시기 • 인정상여와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및 연말정산 준비서류
근로소득의 개요	• 근로소득 (종류, 수입시기 및 금액, 범위 등) •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등) •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공제 종류 및 한도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감면	• 소득세율과 세액감면(중소기업취업자감면 등) •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사업소득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사업소득연말정산 • 종교인소득과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 제출

2 (2차)실무경력자를 위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2.14.(목) 09:30~13:30 (1일, 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최재윤 대표세무사(세무그룹 의정)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개정내용 정리 및 연말정산 사전준비	• MZ세대와 변화하는 노사관계 • 각 세대별 특징과 이해관계의 이해 • 세대간 갈등 사례 분석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소득의 개요	•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과세 근로소득 •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 근로소득 세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3 2023년 개정세법 반영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일 시 12.18.(월)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조세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요 항목별 결산 체크사항1	• 기업회계상 주요 결산항목별 결산 및 회계감사 수정분개시 유의사항 • 자산 항목의 결산 및 회계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 •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 적적성 테스트 절차 등
주요 항목별 결산 체크사항2	• 부채 항목의 회계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 등: 차입금 잔액의 적정성 체크방법 • 자본항목과 수익 비용항목의 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reconcile, 은행계정조정표의 의미 등 • 일반기업회계와 국제회계기준 결산시 주요 차이 해설
주요 항목별 결산 주석사항 체크사항3	• 감사보고서 주석 기재 TIP 해설
주요 항목별 결산 세무조정 체크사항4	• 결산 및 놓치기 쉬운 주요 법인세 세무조정 사례 설명 및 분석 •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접대비/대손금/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세전문가의 상담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사람투자

현장실습-일학습병행

연계 과정 참여기업 모집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학습(현장훈련 등)을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로 고용률 제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IPP형 일학습병행 :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전공분야 기업에서 장·단기현장실습(3학년)을 거쳐 일학습병행(4학년) 수행

- **참여효과 :**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절감,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 **정부지원 :** 현장훈련 비용, 훈련지원금, 기업 전담인력 수당, 실습지원비 등 재정적 지원
  조달청_물품제조, 입찰 가점 / 고용노동부_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안전보건공단_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 병무청_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등
  행정적 지원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50인 이상 & 신용 B등급 이상, 강소기업, 명장기업 등 정부 인증 우수 사업장 우대

YouTube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블로그 검색

문의 및 상담 051.663.5612
pethsas@ks.ac.kr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 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10층	47평 (155.4㎡)	28.4평 (93.8㎡)	61,100,000	611,000	1,222,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 · 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 · 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 · 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 · 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www.onestopbusan.kr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부산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구현
- 신속한 기업 지원서비스로 부산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역량 강화와 부산경제 활성화 도모

협력 기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상공회의소 | BEPA 부산경제진흥원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주요 추진 사업

1 기업지원 소통플랫폼 운영

- 기업애로 접수·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2 기업애로 현장 지원

- 기업애로 현장 방문반 활동
- 기업애로 해소 협의체 개최
- 기업애로 전문컨설팅 지원

3 기업애로·제도개선 건의·진정활동

- 대정부 및 유관기관 건의·진정 활동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Tel. 051-888-6491~3 | Fax. 051-888-6499 | E-mail. onestop@bepa.kr